韓國景気循環의 특徴과 様態：歴史的 考察

白 雄 基

본稿은 6·25戦争 이후 韓國経済가 점은 아홉행의 景気循環으로부터 循環의 特徴과 様態를 정리한 것이다. 景気循環의 特徴은 景気循環의 持続期間, 循環深浅, 變動性, 共行性 및 時差, 海外景気循環과의 關係 등 여섯가지 면에서 살펴보았으며, 循環様態는 循環期
別로 정리하였다.

우리 경제를 循環期별로 살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景気過熱을 식히기 위해 실시한 정
책이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景気を 急呑시킨 시기도 있었으며, 반대로 景気沈滞
期에 도입한 内需浮揚政策이 기대와는 달리 景気を 급격히 과열시켜 단기간내에 物価を
 급등시키고 國際收支을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景気調整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자칫하면
서다카다(stop-go)를 반복하여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政
策決定者は 항상 景気調整을 위한 最適의 政策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特히
石油波動이나 URT타결과 같은 世界経済秩序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衝
撃이 경제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적절한 政策을 구사해야 한다.

景気政策은 長期成長을 提高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政策의 선택은 매
우 신중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겪은 아홉행의 景気循環과
 각종 景気對策의 실시 경험으로부터 政府는 추후 景気調整政策의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정책목표 달성의 效率性을 提高하기 위해서 民間에 대
한 對政府 信頼性을 높아 나가야 할 것이다.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된 1962

筆者：本院 研究委員
* 草稿을 읽고 귀중한 言説을 추신 金俊鎬, 金
俊逸 博士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
가능하다. 그러나 1992년도에는 경제성장
률이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자, 우리 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향후의
을 주는 두 김박사의 논평은 이번에도 한국의
경기부정에 대한 저자들의 좋은 시각을 확대시
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일부
주요(POP)를 사용하여 개별 변수의 경
기전환율을 찾아준 통계학적 연구분석의 장
인 김동중, 이세명, 박범근, 박범근 교수들의
감사가 드린다. 결론적으로 정리와 편
집과정에서 수고하신 윤영규, 김서현, 이
만영 박사, 그리고 섭외 제안을 주신 박
승철 박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 경제성장률은인구생산이나국내총생산의
변동으로 측정되는데, 일정 시간 동안
일정기간 동안 일국의 총계적인 경제활동수
준 변화를 의미한다.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자산
에 관한 중요한 관리자료가 될 수 있기 때
문 경제학에서는 성장률의 추이가 후생생활
을 나타내는 대용 변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균
 한국 GNP의 평균성장률은 8.1%였으나 1981
 91년간의 평균성장률은 8.9%로 높아졌다.
 92년 두 차례에 걸쳐 자생장을 기록하였던
 데 이에 따라 심각한 경기부진이 발생하였다.

3) 경제성장은 시계열에 익숙한 사람들이 경기부
 정의 조건에 따라 분명한 경기부정의 연차를 가
 지며, 경제성장의 경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기부정의 연차를 가진다. 경기부정
의 판별은 계량적으론 반비례에 의존한다.

4) 경기부정의 요인분석은 本稿의 후속 논문인
「韓國景氣循環的要因」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같은 우려는 1992년의 성장율이
일시적인 경기부정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경기부정 현상으로 파악하려
는 관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92년의 성장율
화는 경기부정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있었다. 경제성장의 변동은 항상 경
기부정과 경기부정 현상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
에 1992년과 같이 급격한 성장률의 변동이
있었던 시기에는 항상 위와 같은 논쟁이 제
기되여 왔다. 3)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
해서 초래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이이고 강한 구
조의 요인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성장
률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한 경우
에는 경제요인들이 사라지면 경제는 다시 후
거의 주세정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정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였다던 그 중
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의
변동은 경기부정을 유발시키며, 경
기부정의 경제성장은 성장률을 변동시키는 경
행이 있다.

이 연구의 경기부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한국 경제학의 연구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느러라. 또한 한국 경제학의 연구는 더 나은
모델과 코드를 추가하여, 경기부정을
시계열에 반응하는 전형적인 실질적
적용을 위해서는, 경기부정의 요인을 분
석하고, 경기지표를 이용하여, 경기부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4)

本稿는 경제성장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
는 구체적인 변화를 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6·25 전쟁 이후부터 1992년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의 상태가 특징과 태도에 따라 음익을 집중시키기로 한다. 이를 이에 대해 7장에서는 경제을 간단하게 정의하고, 8장에서는 통계학의 기초와 그에 따른 경제활동의 변화를 알아본다. 9장에서는 경제학의 특성을 살펴보고, 10장에서는 93년 3분기까지 경제의 특징을 순환 기원으로 개관하며, 마지막 11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결론을 내린다.

I. 경제학의 정의

경기순환은 나라 경제의 포괄적인 활동수준을 일컫는다. 경제의 포괄적인 수준은 생산, 거래, 물가 등 여러 가지 변수의動き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 변수에 의존하여 경기동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기의 동향은 국가 경제활동이 일관적으로 발달한가 아니면 부진한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5)

경기의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임산물과 제조품의 생산수요가 감소하며, 경기의 제도의 가능할 수는 없기에 상황이 심화되면서 생산자는 생산량조정을 통해 경기를 줄여나간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사고와 농민, 자본, 경제의 리스크 등의 경제의 대변인들도 임상의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의 지연이 산업에 미치는 반대현상이 일어난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미국의 경제학을 계계적으로 정리한 Burns and Mitchell (1946)의 다음 정의가 자주 인용된다.

“경기순환은 주로 企業活動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제의 경기행위에서 나타나는 변동형태의 일종이다. 하나의 순환은 여러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확장과 조정, 그 후 회복을 이르는 확장과 조정, 그리고 다음 순환으로 연결되는 반복 과정으로 구성된다. 일반의 변동은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일정한 반복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경기의 1년을 2년 혹은 2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순환은 1년에 전개되는 큰순환과의 순환이나 전개되는 대순환의 순환이다.”
2. 景氣循環의 要因

景氣循環은 혼히 景氣變動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景氣循環은 景氣變動 본 특별히 순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景氣變動을 의미한다. 景気変動要因은 季節要因, 不規則要因, 趨勢要因, 循環要因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季節要因是 기후 등 自然條件, 會計年度, 制度, 慣習 등에 의해 주로 1년을 週期로 발생하는 景気変動要因을 말하는 것으로 그 특성은 단기적이며 소규모이다. 不規則要因은 戦爭, 天災地變 등 不可抗力이며 비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기변동요인으로 단기간내 에 대부분 그 根源이 없어진다. 趨勢要因은 경제전반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季節要因과 不規則要因 외의 景氣變動要因으로 趨勢要因과 循環要因이 있는데 이 두가지 요인은 고구마한 경우 매우 어렵다. 例外하던 趨勢要因은 장기적 요인이며 循環要因은 단기적 요인이라는 차이를 보이지만 趨勢要因과 循環要因은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趨勢要因은 일반적으로 技術進歩, 人口增加 및 資本積累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같은 결정요인들 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趨勢要因 역시 안정적이며 완만한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6) 그러나 技術進歩나 資本積累 등이 강한 순환성을 보일 때에는 趨勢要因도 순환성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趨勢要因과 循環要因에 의한 경기변동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다.

3. 景氣循環과 成長循環

古典의 의미의 景氣循環은 趨勢要因과 循環要因을 구분하지 않고 이 두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景気變動을 통합하여 지칭한다. 美国는 古典의 景氣循環의 정의에 따라 推定기와 수익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랜상 6개월 이상 미니스 성장을 계속하면 景気收縮期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景気收縮期에는 거의 예외 없이 미니스 성장이 발생한다.

그나 우리나라는 같은 開發途上國에서 표는 循環要因을 중심하기 때문에 景気收縮期間中에도 성장률이 미니스를 기록하는 예가 거의 없고 成長率이 趨勢値보다 둔화되는 현상만을 보인다.7) 이와 같이 趨勢線을 중심으로 循環要因에 의해 발생하는 景気變動을 가리켜 成長循環(growth cycle)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成長循環을 景気循環이라고 정의한다.

6) 趨勢要因의 안정성이라는 특성은 時系列變數의 長期成長을 결정한다.
4. 外生의 循環과 内生的 循環

景氣가 수축국면에 진입하면 生産이 둔화되고 失業이 증가하며 貨金上升이 둔화되고 消費가 억제되는 등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뒤따르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인 어려움도 수반되기 마련이다. 또한 景氣가 파열되면 급격한 物價上昇이 유발되고 상대가격의 歪曲으로 매회마다 財의 転移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동반된다. 따라서 경제가 어느 정도 趨勢線을 따라 適正成長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복되는 景氣循環은 경제주체들의 效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政策當局은 되도록

이면 時宜適切한 경제정책을 구사함으로써 景気循環을 순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경제정책에 의해 景気循環의 진폭을 경감시키려면 景気循環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먼
저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景気循環의 원인
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경제학자가 92년도 景気鈍化의 원
인으로 총투자의 감소를 주장한다고 하자. 실체로 設備 및 建設投資의 감소는 경제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다른 경제학자들은 緊縮一辺倒로 시행된 通貨政策과 각종 건축규제 등이 景気鈍化의 직접
적인 원인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総投資가 감소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경제원인은 학문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른 정책대응도 관계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므로 자본주의의 역사가 긴 동양先进국에서는 경제원인을 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경제학자들간의 의견이 친밀하게 대립되기도 한다. 8)

경제원인은 분석적으로 밝히려면 경제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의 판단에 가장 합당한 모델을 선택하기 때문에 경제원인의 분석결과는 사용된 모델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원인은 경기주기모델과 경기주기모델로 구별할 수 있는데, 외생 순환모형은 국민총생산과 같은 주요 내생변수의 변동이 전적으로 외부적 충격과 같은 외생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모형이며, 내생순환모형은 외부적 충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생변수의 변동이 내생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도록 만들어진 모형이다. 8)

또한 외생순환모델은 경제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로 파악하고 있으며 경제주기 변화의 원인을 계절적 및 주기적 충격이 경제주기의 파급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반면에, 내생순환모델은 경제를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로 보기 때문에 경기순환이 스스로 발생한 것으로 경제주기에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응하는 경기주기모델은 대형화가 기후에 영향을 주어 경기주기의 발생한다고 보는 태양주기모델과 전쟁이나 중앙은행의 합의를 통해 경기주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학설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적 순환의론으로는 손자중을 들 수 있다. 9)


9) 경제모델은 모형 밖에서의 결과로 결정되어 다른 변수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와 모형내에서 값이 결정되는 내생변수간의 관계식으로 구성되는데, 경기주기모델도 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주기를 보다 1992년의
II. 景気循環의 測定

1. 基準循環日

基準循環日이란 경기호황과 수축극명의 분기점인 頂點과 底點을 말하며 경기순환의 측정수단으로 사용된다. 基準循環日은 景気
変動과 관련이 깊은 經済時系列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정적적으로 頂點과 底點를 추출한
뒤 문제의 의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基準循環日은 매월 발행하고 있는
『景気綜合指數』에는 1972년 3월 이후의 基
準循環日이 수록되어 있으며 1972년 이전
의 基準循環日에 관해서는 經済企劃院 調査
統計局의 자료와 韓國銀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데 두 기관의 基準循環日이 약간 상
이하다. 基準循環日은 1960년부터 정비되어 있는 반면에
韓國銀行의 基準循環日은 1955년부터 정리
되어 있는。本稿에서는 6·25전쟁 이후 한
국의 경기순환을 정리한다는 목적에서 場系
이 조금 더 긴 韓國銀行의 基準循環日을
따르기로 한다。이와 같은 취지하에서『表
1』의 제3순환까지는 韓國銀行의 基準循環
日을 따른 것이며, 제4순환부터 제9순환 底
點까지는 經済企劃院의 기준循環일에 의한 것이
다。 基準循環日의 底點은 공식적으로 결
정된 바 없기 때문에『表 1』의 基準循環日
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1) 基準循環日

<table>
<thead>
<tr>
<th>底點 (年:月)</th>
<th>頂點 (年:月)</th>
<th>底點 (年:月)</th>
<th>擴展期間</th>
<th>收縮期間</th>
<th>全循環期間</th>
<th>全循環期間</th>
</tr>
</thead>
<tbody>
<tr>
<td>底點→頂點</td>
<td>頂點→底點</td>
<td>底點→底點</td>
<td>頂點→頂點</td>
<td></td>
<td></td>
<td></td>
</tr>
<tr>
<td>제 1 순환</td>
<td>-</td>
<td>57:1</td>
<td>58:8</td>
<td>-</td>
<td>19</td>
<td>-</td>
</tr>
<tr>
<td>제 2 순환</td>
<td>58:8</td>
<td>59:10</td>
<td>61:9</td>
<td>14</td>
<td>23</td>
<td>37</td>
</tr>
<tr>
<td>제 3 순환</td>
<td>61:9</td>
<td>63:2</td>
<td>64:2</td>
<td>17</td>
<td>12</td>
<td>29</td>
</tr>
<tr>
<td>제 4 순환(1)</td>
<td>64:2</td>
<td>71:4</td>
<td>72:3</td>
<td>86</td>
<td>11</td>
<td>97</td>
</tr>
<tr>
<td>제 5 순환</td>
<td>72:3</td>
<td>74:2</td>
<td>75:6</td>
<td>23</td>
<td>16</td>
<td>39</td>
</tr>
<tr>
<td>제 6 순환</td>
<td>75:6</td>
<td>79:2</td>
<td>80:9</td>
<td>44</td>
<td>19</td>
<td>63</td>
</tr>
<tr>
<td>제 7 순환</td>
<td>80:9</td>
<td>84:2</td>
<td>85:9</td>
<td>41</td>
<td>17</td>
<td>60</td>
</tr>
<tr>
<td>제 8 순환</td>
<td>85:9</td>
<td>88:1</td>
<td>89:7</td>
<td>28</td>
<td>18</td>
<td>46</td>
</tr>
<tr>
<td>제 9 순환</td>
<td>89:7</td>
<td>91:1</td>
<td>-</td>
<td>18</td>
<td>-</td>
<td>-</td>
</tr>
<tr>
<td>平均循環期間</td>
<td>-</td>
<td>-</td>
<td>-</td>
<td>33.9(23.8)(2)</td>
<td>16.9(3.9)</td>
<td>53.0(23.0)</td>
</tr>
</tbody>
</table>

註: p는 임정지점.
1) 제4순환의 頂點인 71년 4월까지의 景氣轉換點은 韓國銀行의 基準循環日(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 1982년 5월호 참조).
2) ( )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2. 基準循環日上的 國民總生產的 變動

한국경제는 1970년 이후에야 비로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崗業循環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 20여년간 韓國의 產業構造는 상당히 변화하여 製造業의 對 GNP比重이 1970년에는 21.3%이던 것이 80년대 중반에는 30%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며, 1992년도 建設 및 電力・水道・ガス業의 비중은 1970년에 비하여 무려 2.5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하여 農林業業의 비중은 70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工業構造도 크게 변모하였는데 1970년에는 38.1%에 불과하였던 重化學工業의 비중이 92년에는 65.5%로 증가하여 主力産業으로 자리잡았다.

農林漁業 등 1차산업의 對GNP比重은 70년대에는 약 25% 가량으로 他産業에 비하여 크지 않았으나 戦争 直後인 1953년에는 그 비중이 47.3%에 달하여 경제가 農林漁業에 의해 주도되었다.10) 이러한 농업우위의 산업구조는 1953년부터 1970년까지 크게 변모해 1차산업의 비중이 약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으며, 製造業은 2.2배 이상

---

10) 이러한 농업우위의 산업구조는 1953년부터 1970년까지 크게 변모해 1차산업의 비중이 약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으며, 製造業은 2.2배 이상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産業構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農林漁業</td>
<td>47.3</td>
<td>26.7</td>
<td>25.0</td>
<td>14.9</td>
<td>12.8</td>
<td>9.0</td>
<td>7.6</td>
</tr>
<tr>
<td>鑽工業</td>
<td>10.1</td>
<td>22.5</td>
<td>27.5</td>
<td>31.0</td>
<td>31.3</td>
<td>29.4</td>
<td>27.6</td>
</tr>
<tr>
<td>(製造業)</td>
<td>(9.0)</td>
<td>(21.3)</td>
<td>(26.1)</td>
<td>(29.7)</td>
<td>(30.3)</td>
<td>(28.9)</td>
<td>(27.3)</td>
</tr>
<tr>
<td>建設, 電気, 水道, 交通業</td>
<td>2.6</td>
<td>6.5</td>
<td>6.0</td>
<td>10.4</td>
<td>10.5</td>
<td>15.3</td>
<td>17.3</td>
</tr>
<tr>
<td>サービス業</td>
<td>40.0</td>
<td>34.8</td>
<td>33.2</td>
<td>34.2</td>
<td>35.6</td>
<td>36.1</td>
<td>36.6</td>
</tr>
<tr>
<td>政府 및 民間非営利サービス業</td>
<td>-</td>
<td>9.4</td>
<td>8.3</td>
<td>9.5</td>
<td>9.8</td>
<td>10.2</td>
<td>10.8</td>
</tr>
<tr>
<td>工業構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輕工業</td>
<td>78.9</td>
<td>61.9</td>
<td>54.1</td>
<td>48.8</td>
<td>43.3</td>
<td>37.6</td>
<td>34.2</td>
</tr>
<tr>
<td>重化學工業</td>
<td>21.1</td>
<td>38.1</td>
<td>45.9</td>
<td>51.2</td>
<td>56.7</td>
<td>62.4</td>
<td>65.5</td>
</tr>
</tbody>
</table>

注：1) 1953년의 서비스業은 政府 및 民間非営利 서비스業을 포함.
2) サービス業은 都小費 및 飲食宿泊業, 運輸倉庫 및 通信業, 金融保険不動産 및 事業サービス業, 社會 및 個人サービス業, 輸入税, 金融論理サービス(裁定)을 포함.
3) 政府 및 民間非営利サービス業에는 家事サービス 포함.

신장하였다. 따라서 1차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부터 공업 중심으로 전환을 이루고 있었던 1950-60년대의 景気循環現象을 先進工業 國과 같은 景気循環理論론에 따라 논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 로 전개할 景気循環의 特性과 現象에 관한 모든 논의는 1970년대 이후로 국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成長循環에 따라 景気循環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趨勢線을 중심으로 나타난 GNP 구성항목의 변화를 분석하면 景気循環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여기서는 頂點과 底點上에서 GNP의 각 지출항목이 추세GN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계산한 후에 그 차이 를 비교함으로써 景気動向를 계량화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支出比重의 변동은 景気循環의 과정중에서 어느 항목이 景気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였는 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循環過程에서 나타난 支出項目의 변환만 알 수 있 을 뿐이지 支出項目의 변동이 景気循環을 유발했는지 혹은 景気循環이 支出項目의 구 성을 바꾸어 놓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5) 本稿에서는 趨勢 또는 潜在GNP가 趨勢線을 나타내고 있다. 潜在GNP란 資本, 労動 등 生産要소를 모두 활용하였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GNP를 뜻한다. 개량적으로는 X-11 ARIMA방식으로 GNP를 계절조정한 후 대수치 (logarithm)을 취하여 경기점절거리 적정히 이어 대상치를 구한 다음 다시 대수치를 계기 하고 계절요소를 감안하여 潜在GNP의 얻었 다.
비중변동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위축시 각 지출항목의 재정세계GNP비중 변화는 〈표 3〉에 나타나 있으며, 경기 확장시 지출항목의 재정세계GNP비중 변화는 〈표 4〉에 기록되어 있다. ⑫

 먼저 경기병진시에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4순환에서는 건설 및 제조업에 관한 재정세계가 경기전태의 것으로 움직였으나, 일반 및 정부수출에 정부 수출이 경기전태의 것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제5순환以后에는 제4순환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즉 일반 및 정부수출에 정부 수출이 경기전태의 것으로 바뀌면 반면, 재정세계 및 제조업에 경기전태의 것으로 이 되었다. 이어서 나타난 제4순환에서는 일반 및 정부수출에 정부 수출이 경기전태의 것으로 움직인 반면, 재정세계는 여전히 경기전태의 인 행태를 보였다. 제7순환과 제8순환은 각각 제4순환과 제5순환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로써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는 경기후퇴시에 일반 및 정부수출이 경기전태의 상태로 전부 재정세계는 경기전태의 것이고 말할 수 있다. 재정세계가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까지 경기전태의 인 모습을 보인 주된 이유는 건설투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정책방향에 경기전태의이었기 때문에 특징지어진다. 재정세계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투자방향이 결정된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경기수축국면에서 경기전태현상의 인 패턴을 보였다. 즉 1973년도 제5순환뿐 제8순환 기중에는 경기수축기의 동안에도 재정세계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제5순환의 수축기와 재정세계의 건설 초기에 해당하였고 제8순환의 수축기중에는 정부수출이 경기전태로 움직여졌기 때문이다.

제9순환은 두가지 점에서 그 이전의 경향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는데, 첫째 이 기간중에는 건설투자 재정세계의 경기전태의 것이었으나, 둘째 재정세계의 내需재정세계의 경기전태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⑬ 제9순환의 내需재정세계의 관여는 Ⅳ부서에서 제론하기로 한다. 경기전태현상은 재정세계가 경기전태의 것이 경기전태현상이 상례이나 제4, 5, 8순환과 같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제 경기전태현상이 상승하였을 때 각 지출항목의 재정세계GNP비중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는 각 경기전태의 지출항목과 GNP의 각 지출항목이 경기전태GN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 변동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상승시에 일반 및 정부수출, 재정세계 및 제조업에 경기전태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방향은 일정치는 않았으나 재정세계의 변화는 항상 경기전태현상의이었음

⑬ 제9순환의 경기전태현상은 제5순환의 경기전태현상과 같이 일정하지 않았다. 경기전태현상의 경기전태GNP에서 재정세계의 경기전태GNP의 비중은 변동하지 않았다. 경기전태현상의 경기전태GNP에서 재정세계의 경기전태GNP의 비중은 변동하지 않았다. 경기전태현상의 경기전태GNP에서 재정세계의 경기전태GNP의 비중은 변동하지 않았다. 경기전태현상의 경기전태GNP에서 재정세계의 경기전태GNP의 비중은 변동하지 않았다.
## (表 3) 景気脹縮時 趨勢GNP의 비중變化

(단위：%)

<table>
<thead>
<tr>
<th>제 4 순환</th>
<th>제 5 순환</th>
<th>제 6 순환</th>
</tr>
</thead>
<tbody>
<tr>
<td>농림</td>
<td>괴로</td>
<td>차이</td>
</tr>
<tr>
<td>농림</td>
<td>80.47</td>
<td>95.49</td>
</tr>
<tr>
<td>괴로</td>
<td>16.47</td>
<td>18.47</td>
</tr>
<tr>
<td>농림</td>
<td>17.14</td>
<td>7.48</td>
</tr>
<tr>
<td>농림</td>
<td>7.16</td>
<td>6.95</td>
</tr>
<tr>
<td>농림</td>
<td>-6.50</td>
<td>-18.52</td>
</tr>
<tr>
<td>농림</td>
<td>13.30</td>
<td>15.73</td>
</tr>
<tr>
<td>농림</td>
<td>27.96</td>
<td>26.28</td>
</tr>
<tr>
<td>농림</td>
<td>100.08</td>
<td>99.32</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제 7 순환</th>
<th>제 8 순환</th>
<th>제 9 순환</th>
</tr>
</thead>
<tbody>
<tr>
<td>농림</td>
<td>농림</td>
<td>농림</td>
</tr>
<tr>
<td>84:Ⅰ</td>
<td>85:Ⅲ</td>
<td>차이</td>
</tr>
<tr>
<td>농림</td>
<td>69.61</td>
<td>60.91</td>
</tr>
<tr>
<td>농림</td>
<td>12.01</td>
<td>9.67</td>
</tr>
<tr>
<td>농림</td>
<td>15.25</td>
<td>17.13</td>
</tr>
<tr>
<td>농림</td>
<td>-0.84</td>
<td>-4.40</td>
</tr>
<tr>
<td>농림</td>
<td>40.90</td>
<td>35.57</td>
</tr>
<tr>
<td>농림</td>
<td>43.86</td>
<td>31.65</td>
</tr>
<tr>
<td>농림</td>
<td>106.11</td>
<td>99.14</td>
</tr>
</tbody>
</table>

**誼：** 1) 92:Ⅳ는 統計廳에서 발표한 公式적인 底點이 아니라 原意상 推測한 底點代用임.
資料：韓國銀行，『國民計定』，各號。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9년 말부터 91년 초에 이르는 기간인 제9순환의 확장주면에
서서는 輸出比重的 增加가 극히 미미하였던
반면 内需와 在庫增加의 比重이 크게 상승
하여 景気擴大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과 〈表 4〉의 분석을 종합하면, 제9
순환을 제외하면 70년대 중반부터는 외생성
이 강한 輸出增加勢의 高低가 景気循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최근 제9순
환은 수출보다는 内需變動이 景気循環을 주
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表 4 景氣擴張時 趨勢GNP의 비중 변화

<table>
<thead>
<tr>
<th>제 5 순 환</th>
<th>제 6 순 환</th>
<th>제 7 순 환</th>
</tr>
</thead>
<tbody>
<tr>
<td>底點 72: I</td>
<td>底點 75: II</td>
<td>底點 80: III</td>
</tr>
<tr>
<td>底點 84: I</td>
<td>底點 79: I</td>
<td>底點 84: I</td>
</tr>
<tr>
<td>底點 74: I</td>
<td>頂點 75: III</td>
<td>頂點 80: III</td>
</tr>
<tr>
<td>底點 79: I</td>
<td>頂點 79: I</td>
<td>頂點 84: I</td>
</tr>
<tr>
<td>頂點 72: I</td>
<td>頂點 75: II</td>
<td>頂點 79: I</td>
</tr>
<tr>
<td>頂點 80: III</td>
<td>頂點 84: I</td>
<td>頂點 84: I</td>
</tr>
<tr>
<td>頂點 74: I</td>
<td>頂點 79: I</td>
<td>頂點 84: I</td>
</tr>
<tr>
<td>資料：韓國銀行，《國民計算》，各號。</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제 8 순 환 | 제 9 순 환

| 底點 85: III | 底點 89: III |
| 頂點 88: I | 頂點 91: I |
| 底點 88: I | 頂點 91: I |
| 底點 89: III | 頂點 91: I |
| 資料：韓國銀行，《國民計算》，各號。 |

### 3. 基準循環日上에서 稼動率의 變動

〈表 3〉과 〈表 4〉의 마지막 행인 計는 GNP항목的 對趨勢GNP比重을 합한 것으로서 稼動率概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 은 景氣循環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일반적으로 頂點에서는 100보다 다소 큰 값 을, 底點에서는 10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統計廳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인 稼動率指 數를 200개 품목을 중심으로 매월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다。本節에서는 경기순환일상
에서 가동률지수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을 살펴보기로 한다.


4. 基準循環日上的 循環變動值

統計廳에서는 경기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서 景気同行 및 景気先行綜合指數를 매월 작성·발표하고 있다. 景気綜合指數는 자체의 계열내에 趨勢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原序列로부터 경기순환적 요소 를 직접 알아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景気循環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同行指數로부터 趨勢値를 제거한 同行指數循環變動値(図 3 참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景氣轉換點에서 景気同行指數의 循環変動値는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一見하면 1970년 이후 여섯번의 순환과정에서 循
[表 5] 景気循環点における同行指数 循環変動値

<table>
<thead>
<tr>
<th></th>
<th>頂点 (年:月)</th>
<th>循環 変動値</th>
<th>底点 (年:月)</th>
<th>循環 変動値</th>
</tr>
</thead>
<tbody>
<tr>
<td>제4순환</td>
<td>71:4</td>
<td>103.0</td>
<td>72:3</td>
<td>94.0</td>
</tr>
<tr>
<td>제5순환</td>
<td>74:2</td>
<td>106.1</td>
<td>75:6</td>
<td>97.8</td>
</tr>
<tr>
<td>제6순환</td>
<td>79:2</td>
<td>107.0</td>
<td>80:9</td>
<td>96.6</td>
</tr>
<tr>
<td>제7순환</td>
<td>84:2</td>
<td>102.7</td>
<td>85:9</td>
<td>96.6</td>
</tr>
<tr>
<td>제8순환</td>
<td>88:1</td>
<td>104.6</td>
<td>89:7</td>
<td>100.0</td>
</tr>
<tr>
<td>제9순환</td>
<td>91:1°</td>
<td>102.6</td>
<td>-</td>
<td>-</td>
</tr>
</tbody>
</table>

註: p는 暫定値임.

III. 景気循環の特徴

本章では、 WVSRの景気循環の特徴を
循環週期、循環深度、変動性、共行性과 時差
1. 循環週期

한국의 景気變動的 平均週期는 약 51～53개월로 추정된다. 〈표 1〉에 의하면 한 週期를 底點에서 다음 底點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한다면, 平均週期는 53개월이며 頂點에서 頂點을 한 週期로 계산한다면 51개월이 다. 경기순환의 평균확장기간은 33.9개월, 평균수축기간은 16.9개월로 나타났으며 擴張期의 표준편차는 23.8개월로 擴張期間이 순환기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收縮期의 표준편차는 3.9개월로 안정되어 있다.

가장 긴 擴張期는 1964년 2월부터 1971년 4월까지 총 86개월 동안 지속된 제4순환이었으며, 가장 짧은 擴張期는 58년 8월부터 59년 10월까지 14개월만에 끝난 제2순환이었다. 또한 가장 짧은 收縮期는 제4순환으로 11개월만에 확정국면이 이어졌으며, 가장 긴 收縮期는 아직 미확정된 제9순환을 제외하면 23개월간 지속된 제2순환의 收縮期였다.

기간별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제6순환이 후 근간으로 올수록 景気拡張期는 짧아지고 있으며, 景気收缩期는 17～19개월로 안정되어 있다. 循環週期는 확장지속기간의 단축 현상 때문에 점차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작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여건과 국내경제정책의 깊은 전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循環深度

循環深度는 好況 혹은 不況의 크기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대상변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非農林GNP成長率의 차이로 경기순환의 深度를 측정한다면 景気拡張期에는 非農林GNP成長率이 1～1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경기수축기에는 6～1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6 참조).

이 측정법은 頂點과 底點 사이의 성장률 변화는 무시하고 단순히 頂點과 底點간에서의 經濟成長率만을 비교하여 循環深度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非農林GNP成長率이 底點에서 가장 낮고 頂點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방법은 循環深度의 측정방법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景気拡張期와 收縮期間中の 深度는 각 순환기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平均深度의 절대치는 9～10%포인트로서 거의 동일하다. 循環期別 특징으로는 제9순환 拡張期의 循環深度가 70년 이후의 拡張期中 가장 작은데, 이는 제9순환의 급격히 파거와는 달리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2차 石油波動에 영향을 받은 제6순환의 循環深度가 수축기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景氣循環의 深度

(단위: %포인트)

<table>
<thead>
<tr>
<th></th>
<th>제4순환</th>
<th>제5순환</th>
<th>제6순환</th>
<th>제7순환</th>
<th>제8순환</th>
<th>제9순환</th>
<th>평 균</th>
</tr>
</thead>
<tbody>
<tr>
<td>확장기</td>
<td>-</td>
<td>11.4</td>
<td>9.7</td>
<td>12.1</td>
<td>11.0</td>
<td>1.6</td>
<td>9.2</td>
</tr>
<tr>
<td>수축기</td>
<td>-10.2</td>
<td>-7.7</td>
<td>-15.6</td>
<td>-6.4</td>
<td>-10.1</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주: 1) 확장기의 循環深度는 底部으로부터 頂點까지의 非農林漁業GNP成長率의 正자 (+), 수축기의 循環深度는 底部으로부터 頂點까지의 非農林漁業GNP成長率의 負자 (-)로 측정하였음.

2) 경기전환점은 (표 3)의 轉換月을 轉換分期로 바꾼 것임.

3. 變動性

다음에는 각 변수의 增加率의 異變편차로 측정되는 變動性을 살펴보자. 1971년부터 92년까지 全期間은 70년대와 80년대로 구분하여 異變편차를 계산하면 두 기간에 걸쳐 나타난 景氣循環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

19) 變動性은 시계열 변수의 安定性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2차 積率(모멘트)을 의미하며 다음 점에서 다룰 循環變動観点은 다른 개념이다.


21) 80년대의 變動性 감소원인으로 政府의 경기대응의 향상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模型을 이용한 景気循環의 원인에 대해서 다루어진다.

22) 1971년부터 79년까지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8.2%에 달했으나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하여 1971~80년까지의 평균성장률은 7.7%로 하락하였다.

다. 이를 위해 기간별, 순환국면별로 國民 總生產 支出項目的 平均増加율과 異變편차를 계산하여 (표 7)에 수록하였다.

70년대와 80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80년대 安定性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80년 대에 들어 國民總生產과 民間消費의 평균増加율은 70년대보다 훨씬 증가한 반면 異變편차는 오히려 감소하여 변동성이 완화되었고 總固定投資, 商品輸出, 商品輸入은 平均增加율의 設施화와 더불어 異變편차, 즉 變動性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80년대의 경기전환점이 70년대와 달라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變動性的 감소는 時序列變數의 安定性의 증가를 뜻하며 해당변수에 景気循環을 유발시키는 외부충격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국경제는 70년대를 통하여 연평균 7.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경 제구도의 신장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80년대에는 외부충격의 영향력이 그만큼 감소하였 다고 해석할 수 있다.

循環局面別으로 보면 民間消費를 제외하고는 景氣循環期의 增加率과 變動性이 확장期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國民總生產</td>
<td>8.19 (5.8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9.19 (3.7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8.74 (4.7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9.32 (4.8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7.71 (4.6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民間消費</td>
<td>7.45 (2.8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7.21 (2.9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7.74 (2.7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總固定投資</td>
<td>11.16 (8.8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2.94 (14.8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5.36 (16.7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9.18 (10.8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商品輸出</td>
<td>11.15 (10.3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7.38 (17.5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2.28 (18.9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9.67 (12.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商品輸入</td>
<td>10.95 (8.1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3.10 (13.4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4.70 (14.4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0.49 (11.77)</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조 : 1) 분기資料를 사용하였음.
2) ( )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의增加率과變動性보다 모두 낮아졌다.民間消費的 평균증가율이收缩期에 더욱 높아진 이유는 제8순환의 수축기중의消費增加와 제9순환의 확장기간중消費誘因때문이 다. 이는 1986년부터 88년의好況期동안
株式 및不動産市場의好況에 기인한資産
價值의暴騰이 제8순환 수축기에도民間
消費를增加시켰고, 제9순환의 확장기중에
는資産價值騰貴로 인한資本效果가大都
分消盡되었기 때문에소비중가율이문화된
현상으로분석된다.

다음에는GNP이외의주요 경제변수에
도비슷한현상이나타나는지조사하여보
았다. 〈表 8〉에 의하면産業生產,出荷,在
庫,總通貨,輸出,輸入,物價,非農家就業
者,失業率 등의모든시계열의안정성은
70년대보다80년대에증가하였으며평균증
가율은70년대보다문화되었다. 그러나예
금은행대출금은〈表 8〉의기타 변수와는금
리80년대에변동성이 오히려증가하였는데
이는1988~89년 사이에農水産資金 및住
宅資金과商業이음액이 크게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表 7〉에서 나타난바와
은‘80년대안정성의 증가’는예금은행대출
금을제외한기타주요변수에서도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循環局面別로는在庫指數와消費者 및生
産者物價的平均增加率이 수축국면에서 더
욱 크게 나타났으며, 다른변수들은확장国
면보다수축국면에서平均增加率이 더작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在庫가 수축국면의조
기에따르게 누적되기 때문에在庫指數가
수축기에 더욱증가하는현상을보였고,과
거에 가장物價上昇幅이 컸던 것은 경기훈
<table>
<thead>
<tr>
<th></th>
<th>1971~80년</th>
<th>1981~92년</th>
<th>1971~92년</th>
<th>景気拡張期</th>
<th>景気收縮期</th>
</tr>
</thead>
<tbody>
<tr>
<td>産業生産指數</td>
<td>19.46 (11.73)</td>
<td>11.09 (7.37)</td>
<td>14.89 (10.45)</td>
<td>17.47 (9.84)</td>
<td>11.55 (10.14)</td>
</tr>
<tr>
<td>出荷指數</td>
<td>19.57 (10.77)</td>
<td>11.44 (6.93)</td>
<td>15.14 (9.75)</td>
<td>17.78 (9.56)</td>
<td>11.24 (8.81)</td>
</tr>
<tr>
<td>在庫指數</td>
<td>19.52 (19.11)</td>
<td>11.65 (6.60)</td>
<td>15.23 (14.30)</td>
<td>9.37 (9.06)</td>
<td>23.41 (16.39)</td>
</tr>
<tr>
<td>総通貨</td>
<td>30.24 (6.54)</td>
<td>19.09 (5.25)</td>
<td>24.15 (8.08)</td>
<td>26.74 (8.34)</td>
<td>20.30 (6.02)</td>
</tr>
<tr>
<td>輸出1)</td>
<td>40.23 (32.92)</td>
<td>13.98 (14.03)</td>
<td>25.23 (27.27)</td>
<td>30.36 (29.80)</td>
<td>17.16 (20.39)</td>
</tr>
<tr>
<td>輸入1)</td>
<td>31.42 (29.46)</td>
<td>12.63 (16.15)</td>
<td>20.68 (24.60)</td>
<td>20.03 (25.17)</td>
<td>21.70 (23.77)</td>
</tr>
<tr>
<td>消費者物価</td>
<td>15.51 (7.90)</td>
<td>6.65 (5.38)</td>
<td>11.13 (8.26)</td>
<td>10.36 (8.01)</td>
<td>12.11 (8.62)</td>
</tr>
<tr>
<td>生産者物価</td>
<td>11.09 (7.37)</td>
<td>3.47 (6.00)</td>
<td>10.49 (12.41)</td>
<td>8.62 (9.12)</td>
<td>13.28 (15.77)</td>
</tr>
<tr>
<td>非農家就業者2)</td>
<td>6.51 (3.07)</td>
<td>5.17 (1.86)</td>
<td>5.78 (2.56)</td>
<td>6.06 (2.22)</td>
<td>5.43 (3.00)</td>
</tr>
<tr>
<td>失業率2)3)</td>
<td>4.13 (1.07)</td>
<td>3.29 (1.06)</td>
<td>3.67 (1.14)</td>
<td>3.77 (1.06)</td>
<td>3.47 (1.20)</td>
</tr>
<tr>
<td>失業率(季節調整)2)</td>
<td>6.51 (3.07)</td>
<td>5.17 (1.86)</td>
<td>5.78 (2.56)</td>
<td>3.80 (0.78)</td>
<td>3.44 (0.97)</td>
</tr>
<tr>
<td>預金銀行貸出金</td>
<td>32.65 (6.55)</td>
<td>20.50 (6.62)</td>
<td>26.02 (8.94)</td>
<td>26.33 (6.61)</td>
<td>25.56 (11.57)</td>
</tr>
</tbody>
</table>

註: 1) 輸出入は通関基準で、増加率の初期値は72年1月に起算。
2) 非農家就業者と失業率は年寄事業、 기타時系列は個別資料発表。
3) 失業率は増加率での基準で、X-11 ARIMAで季節調整した。
4) 1971~80年の値は表を基に計算。

變動性は出荷指數、総通貨、輸出、輸入などの変数で、拡張期と収縮期で増加傾向が見られ、産業生産指数、在庫指數、物価、非農家就業者、失業率、預金銀行貸出金などの変数では、変動性が増加傾向を示している。特に、失業率の変動性が突出している。

23) 預金銀行貸出金の変動性が景気収縮期間中で著しく縮小したことは、5年間と8年間の比較から、変動性が出荷指數、総通貨、輸出、輸入などの変数で、拡張期と収縮期で増加傾向が見られ、産業生産指数、在庫指數、物価、非農家就業者、失業率、預金銀行貸出金などの変数では、変動性が増加傾向を示している。特に、失業率の変動性が突出している。
증가한 것은 경기후기 동안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탈퇴현상을 반영한 것 으로 보인다.

4. 공行性 및 시차성

공행성이란 경기순환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주요 경제변수들이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일컫는다. 경제변수 증에서 캐리지어, 제조업稼動, 非農家就業者數 등의 경기와 빈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5주출기 중에는 주요, 內需用輸入原料及設備金融을 비롯한 銀行融資, 債務金融, 償債金출 및 割引金출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8주출기중에는 农水産資金, 住宅資金 및 割引金출 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韓國銀行, <年次報告書>, 참조).

24) 경기순환의 기준이 되는 단일변수로는 國民総 生産이나 產業生産 등을 들 수 있으나 어느 것도 경기순환과 별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변수만 아니라면 경기순환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가장 부합한다.


26) 최근 경제예측의 문제에서 先行指標接近法 (leading indicator approach: LIA)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미 I각의 Burns and Mitchell의 정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기순환의 특성은 순환의 반복성에 있으며 예측의 문제는 과거의 자료로부터 반복실험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LIA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점에서는 LIA방법은 논문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자세한 논의는 Lahiri and Moore (1991)를 참조.
수의 구성요소인 개별 변수는 종합지수의 정리 경기전환점으로부터 다양한 시차를 보일 수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별 변수들이 점과 점에서 보이는 평균 달성률(先行性)을 계산하여 (표 9)에 수록하였다. (표 9)에 나타난 대부분의 변수들은 자체내에 계절성과 추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행성과 시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절적 요인과 추세적인 성분의除此之外가 포함되어야 한다.27)

先行변수는 전체동일과 기기의 사용 점과 점에 대하여 강한 흐름성을 보이고 있고 기기 점에서의 점과 점에 대하여 강한 후행성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합분석은 점과 점에 대하여 약한 후행성을 나타내고 있다.28) 반면, alleviation 상의 자료는 점과 점에 대한 후행성이 각각 평균 4.4개월 및 0.6개월로 함께 나타났다.

대부분의 통합지수 구성변수는 점과 점에 관하여 거의 시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점과 점에 대해서는 통합지수의 추세를 보고, 점과 점에 관

27) (표 9)의 변수 중 추세가 강한 개별변수들은 통계학에서 이미 계절정기화된 자료에 기초하여 전년값과 비교하여 정규화한 시차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전년값과 비교는 추세에서 대상변수를 전반적 후행성을 보이므로 시차는 해석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28) 통합분석의 경우, 통합지수의 구성항목인에도 불구하고 점과 점에 대하여 후행성을 보인 것은 1980년 9월 점에서 12개월의 후행형상(trend outlier)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외 하면 통합분석은 점과 점뿐 아니라 점과 점에 대해서도 흐름성을 보인다.

이라는 시장도 입자 수의 통계영구수로서는 다소 큰 1.6개월의 후행성을 보였고, 1.5개월의 후행성은 보였다.

마지막으로, 점과 점는 통합지수의 재무적 성과를 가지고 10.0개월 이상의 가장 저한 후행성을 보이고 있으며, 점과 점에 대해서는 시장은 통계적 성과를 가지고 가장 긴 후행성을 나타내고 있다.

5. 대상의 성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국의 경기회전에는 대상의 성과의 존재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경기상업은 일반적으로 느리고 완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경기상업은 빠르고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기상업의 대상의 성은 한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을 보면 평균확장기간은 33.9개월이지만 평균수축기간은 16.9개월로 확장기간이 수축기간에 비해 2배 가량 긴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확장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뒤이어 계속되는 수축기간이 비례적으로 길어지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대상의 성은 (표 7)의 국산 현상의 개별지 출장목이나 (표 8)의 제반 경제변수의 증감률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변수들은 수축기보다는 확장기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 다. 특히 확장기의 출수는 수축기의 출수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확장기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전부터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투자는 출수 다음으로
<table>
<thead>
<tr>
<th>先行指數 構成項目</th>
<th>頂 回 數</th>
<th>先行時差 個月數</th>
<th>平均時差 個月數</th>
<th>底 回 數</th>
<th>先行時差 個月數</th>
<th>平均時差 個月數</th>
</tr>
</thead>
<tbody>
<tr>
<td>建築許可面積</td>
<td>5</td>
<td>51</td>
<td>10.2</td>
<td>5</td>
<td>26</td>
<td>5.2</td>
</tr>
<tr>
<td>建設用中間財産指數</td>
<td>5</td>
<td>34</td>
<td>6.8</td>
<td>5</td>
<td>13</td>
<td>2.6</td>
</tr>
<tr>
<td>機械受注額</td>
<td>3</td>
<td>40</td>
<td>13.3</td>
<td>3</td>
<td>4</td>
<td>1.3</td>
</tr>
<tr>
<td>輸出信用額</td>
<td>5</td>
<td>7</td>
<td>1.4</td>
<td>5</td>
<td>21</td>
<td>4.2</td>
</tr>
<tr>
<td>輸出承認額</td>
<td>5</td>
<td>22</td>
<td>4.4</td>
<td>5</td>
<td>-5</td>
<td>-1.0</td>
</tr>
<tr>
<td>總流動性</td>
<td>5</td>
<td>67</td>
<td>13.4</td>
<td>4</td>
<td>21</td>
<td>5.3</td>
</tr>
<tr>
<td>預金銀行貸出金</td>
<td>5</td>
<td>61</td>
<td>12.2</td>
<td>5</td>
<td>38</td>
<td>7.6</td>
</tr>
<tr>
<td>製造業在庫率指數 (逆)</td>
<td>5</td>
<td>22</td>
<td>4.4</td>
<td>5</td>
<td>3</td>
<td>0.6</td>
</tr>
<tr>
<td>中間財出荷指數</td>
<td>3</td>
<td>7</td>
<td>2.3</td>
<td>2</td>
<td>10</td>
<td>5.0</td>
</tr>
<tr>
<td>入職者數 / 離職者數</td>
<td>5</td>
<td>17</td>
<td>3.4</td>
<td>5</td>
<td>15</td>
<td>3.0</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同行指數 構成項目</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産業生産指數</td>
<td>6</td>
<td>-7</td>
<td>-1.2</td>
<td>5</td>
<td>3</td>
<td>0.6</td>
</tr>
<tr>
<td>製造業稼動率指數</td>
<td>6</td>
<td>9</td>
<td>1.5</td>
<td>5</td>
<td>2</td>
<td>0.4</td>
</tr>
<tr>
<td>生産者出荷指數</td>
<td>6</td>
<td>-1</td>
<td>-0.2</td>
<td>5</td>
<td>1</td>
<td>0.2</td>
</tr>
<tr>
<td>都小販売業指數</td>
<td>6</td>
<td>1</td>
<td>0.2</td>
<td>5</td>
<td>3</td>
<td>0.6</td>
</tr>
<tr>
<td>非耐久消費財出荷指數</td>
<td>3</td>
<td>1</td>
<td>0.3</td>
<td>3</td>
<td>4</td>
<td>1.3</td>
</tr>
<tr>
<td>輸入額</td>
<td>5</td>
<td>6</td>
<td>1.2</td>
<td>5</td>
<td>4</td>
<td>0.8</td>
</tr>
<tr>
<td>購入純消費金</td>
<td>6</td>
<td>-4</td>
<td>-0.7</td>
<td>5</td>
<td>-8</td>
<td>-1.6</td>
</tr>
<tr>
<td>非農業 就業者数</td>
<td>3</td>
<td>0</td>
<td>0.0</td>
<td>2</td>
<td>3</td>
<td>1.5</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後生指數 構成項目</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機械類輸入額</td>
<td>5</td>
<td>-23</td>
<td>-4.6</td>
<td>5</td>
<td>-6</td>
<td>-1.2</td>
</tr>
<tr>
<td>生産者製品在庫指數</td>
<td>5</td>
<td>-46</td>
<td>-9.2</td>
<td>5</td>
<td>-32</td>
<td>-6.4</td>
</tr>
<tr>
<td>耐久消費財出荷指數</td>
<td>3</td>
<td>-30</td>
<td>-10.0</td>
<td>3</td>
<td>-21</td>
<td>-7.0</td>
</tr>
<tr>
<td>会社債流通收益率</td>
<td>4</td>
<td>-32</td>
<td>-8.0</td>
<td>4</td>
<td>-51</td>
<td>-12.8</td>
</tr>
<tr>
<td>非農業失業率 (逆)</td>
<td>3</td>
<td>-7</td>
<td>-2.3</td>
<td>2</td>
<td>-3</td>
<td>-1.5</td>
</tr>
</tbody>
</table>

註: 1) + は先行, - は後行を 나타냅。
2) 資料: 統計廳, 『景気経済指標』, 各号。

順序観測上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建設이나 設備投資変動에 輸出 다음으로 경기순환의 큰 요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民間消費는 拡張기와 순환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경 기순환에 비교적 둔감하다고 알려져 있는 消費変動의 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끝으 로(表 8)에서는 総通貨が 景気拡張期에 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表10 戦後日本の基準循環日

<table>
<thead>
<tr>
<th>底点 (年：月)</th>
<th>頂点 (年：月)</th>
<th>底点→頂点</th>
<th>擴張期間</th>
<th>收縮期間</th>
<th>全循環期間</th>
</tr>
</thead>
<tbody>
<tr>
<td>제1순환</td>
<td>51:6</td>
<td>51:10</td>
<td>4</td>
<td>37</td>
<td></td>
</tr>
<tr>
<td>제2순환</td>
<td>54:11</td>
<td>54:11</td>
<td>12</td>
<td>36</td>
<td></td>
</tr>
<tr>
<td>제3순환</td>
<td>57:6</td>
<td>58:6</td>
<td>12</td>
<td>36</td>
<td></td>
</tr>
<tr>
<td>제4순환</td>
<td>61:12</td>
<td>62:10</td>
<td>12</td>
<td>36</td>
<td></td>
</tr>
<tr>
<td>제5순환</td>
<td>64:10</td>
<td>65:10</td>
<td>12</td>
<td>36</td>
<td></td>
</tr>
<tr>
<td>제6순환</td>
<td>70:7</td>
<td>71:12</td>
<td>12</td>
<td>36</td>
<td></td>
</tr>
<tr>
<td>제7순환</td>
<td>73:11</td>
<td>75:3</td>
<td>12</td>
<td>36</td>
<td></td>
</tr>
<tr>
<td>제8순환</td>
<td>77:1</td>
<td>77:10</td>
<td>12</td>
<td>36</td>
<td></td>
</tr>
<tr>
<td>제9순환</td>
<td>80:2</td>
<td>83:2</td>
<td>12</td>
<td>36</td>
<td></td>
</tr>
<tr>
<td>제10순환</td>
<td>85:6</td>
<td>86:11</td>
<td>12</td>
<td>36</td>
<td></td>
</tr>
<tr>
<td>平均循環期間</td>
<td>31.3(11.3)</td>
<td>14.3(8.6)</td>
<td>46.8(14.2)</td>
<td></td>
<td></td>
</tr>
</tbody>
</table>

注：1) ( ) 안의 값은 표준편차。
資料：日本経済企画庁，『季刊日本経済指標』，FY93, No. 1.

### 表11 戦後米国の基準循環日

<table>
<thead>
<tr>
<th>底点 (年：月)</th>
<th>頂点 (年：月)</th>
<th>底点→頂点</th>
<th>擴張期間</th>
<th>收縮期間</th>
<th>全循環期間</th>
</tr>
</thead>
<tbody>
<tr>
<td>제1순환</td>
<td>49:10</td>
<td>53:7</td>
<td>45</td>
<td>10</td>
<td>55</td>
</tr>
<tr>
<td>제2순환</td>
<td>54:5</td>
<td>57:8</td>
<td>39</td>
<td>8</td>
<td>47</td>
</tr>
<tr>
<td>제3순환</td>
<td>58:4</td>
<td>60:4</td>
<td>24</td>
<td>10</td>
<td>34</td>
</tr>
<tr>
<td>제4순환</td>
<td>61:2</td>
<td>69:12</td>
<td>106</td>
<td>11</td>
<td>117</td>
</tr>
<tr>
<td>제5순환</td>
<td>70:11</td>
<td>73:11</td>
<td>36</td>
<td>16</td>
<td>52</td>
</tr>
<tr>
<td>제6순환</td>
<td>75:3</td>
<td>80:1</td>
<td>58</td>
<td>6</td>
<td>64</td>
</tr>
<tr>
<td>제7순환</td>
<td>80:7</td>
<td>81:7</td>
<td>12</td>
<td>16</td>
<td>28</td>
</tr>
<tr>
<td>제8순환</td>
<td>82:11</td>
<td>90:7</td>
<td>92</td>
<td>8</td>
<td>100</td>
</tr>
<tr>
<td>平均循環期間</td>
<td></td>
<td></td>
<td>51.5(32.5)</td>
<td>10.6(3.7)</td>
<td>62.1(31.1)</td>
</tr>
</tbody>
</table>

注：1) ( ) 안의 값은 표준편차。
*는 베트남전쟁好況期を指すもの。
[表 12]  日本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기수익 우선성

<table>
<thead>
<tr>
<th></th>
<th>제2순환</th>
<th>제3순환</th>
<th>제4순환</th>
<th>제5순환</th>
<th>제6순환</th>
<th>제7순환</th>
<th>제8순환</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일본</td>
<td>28</td>
<td>19</td>
<td>13</td>
<td>3</td>
<td>25</td>
<td>48</td>
<td>31</td>
<td>23.9</td>
</tr>
<tr>
<td>미국</td>
<td>26</td>
<td>39</td>
<td>20</td>
<td>3</td>
<td>-</td>
<td>49</td>
<td>-</td>
<td>27.4</td>
</tr>
</tbody>
</table>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경기순환에는 한국의 제6순환과 제8순환에 대응하는 업황순환이 발견되지 않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지의 선행성도 미국의 경우에는 27.4개월로 너무 크게 나타나 현실성이 없어진 것 같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기수축은 한국의 경기수축에 대해 미공과 짧은 2년의 선행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의 경제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30


IV. 경기순환의 형태

한국은 해방 이후 47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큰 크고 작은 경기순환을 겪었다. 해방 이후 1952년까지는 국민소득을 비롯한 각종...
자료가 미비되어 기상循環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종전 후인 1953년부터는 병완전 하지만 귀네움을 비롯한 통계자료와 정책자료의 수가 있어, 기상循環현상은 분석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귀네움도, 정책분석을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던 경제정책에 근거하여 기상循環의 존재를 개념하기로 한다.

금융시장이 후진성을 보이는 가운데 단기 간대에 실물부분은 급속히 성장한 한국의 기상循環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외생측면에서의 통상적인 충격과 거시경제정책의 변경 외에도, 신앙이와 변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金秉音(1993, 12)에 의하면 경부는 60년대 이후 80년대 전반까지 실물 부분이 외화금융부문으로 인한 제약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였는데, 그 정책의 핵심은 '신탁금융'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앙이와 변동이가 큰 영향이 막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별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하며, 본장에서는 순환탐색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기상循環은 경제적으로 순환요인의 발상 장소에 따라, 해외요인/농내요인으로 구분하며, 외생적 요인에 따라, 변동의 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변동의 요인/변동의 요인/실물의 요인/주로 개인의 요인/개별의 요인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31) 32) 그러나 어느 경우든 기상循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모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분석결과 역시 모형의 정의(model-specific)의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모형은 통상 경제분석가의 의 중에 있는 분석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형을 만드는 사람의 주관 (prior)이 강하게 반영되기 마련이며, 모형에 따라 기상循環의 요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循環의 요인이 수요측면에서 더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공급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모형을 만드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통고론자는 경제에 중점을 두는 근원이 안정적인 통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변동을 강조한 기상循環모형을 만들었지만, 실물기상 변동의 영향을 기상循環이 기술의 이음대로의 유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통고론자는 동일한 모형을 사용해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다. 후기 경기를 위한 원인분석은 현실경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해야 하지만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최종결과는 모형의존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된 모형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본장에서는 근본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경기형성의 원인분석방법을 주장하고, 경기전환점이 발생한 당시의 특수한 경제변경과 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기전환의 양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32)

1. 1번째(1953.7  1958.8)

1953년 7월에 개립된 조정국의 한국

32) 미국의 경우에 Eckstein and Sinai (1986)는 '계절성'적인 모형을 사용하여 1966년 1분기부터 85년 2분기까지 GDP를 가지고 경기전환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금융정책(credit crunch)과 통화정책이 경기전환의 31.4%를 설명하는 데 반하여, 오일쇼크는 15.9%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즉, '계절성'적인 모형은 경기전환의 원인으로 공급측보다는 수요측을 크게 평가한다. 그러나 Karras (1993)와 같은 실질경기가 문론자들의 모형은 경기전환의 원인으로 수요측보다 공급측을 높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33) 경제는 전쟁으로 인한 산업시설의 파괴와 기초시설의 미비로 말미암아 주로 미국과 UN의 원조에 의존하여 경제재건과 경제안정을 추진하였다.

조약으로 인하여 제조화된 국민경제는 막대한 원자로 문화 생산발집이 활발하게 재건된 결과, 1953년에는 전쟁기간이었던 52년에 비하여 국민생산이 25%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재생과정은 1954 57년의 4년간에 걸쳐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에 이르렀으며 4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였다. 이로서 과업력 산업시설은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내수 충족용이었다.

1956년도는 미학산생이 크게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1.4% 감소하였으나 이듬해인 57년도에는 풍작으로 인하여 농산업산생이 무려 9.4%나 증가하였고 원조수입실적도 최대치에 이르렀다. 이는 대외에 이어져 53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58년부터 미국의 원조수입이 점차 감소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58년 성장둔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미학경제원조의 축소 외에도 근본적인 원인으로도 추정되는 금융안정정책의 실패일 것이다. 50년대의 한국경제는 전쟁을 통해 재건을 위한 대규모의 정부사업을 거치면서 재정재정성이 누수되고 이에 따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만연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경제 성장률</td>
<td>5.1</td>
<td>4.5</td>
<td>-1.4</td>
<td>7.6</td>
<td>5.5</td>
<td>3.8</td>
<td>1.1</td>
<td>5.6</td>
</tr>
<tr>
<td>농림수산업</td>
<td>8.0</td>
<td>1.5</td>
<td>-6.9</td>
<td>9.4</td>
<td>7.3</td>
<td>-0.3</td>
<td>-2.1</td>
<td>12.2</td>
</tr>
<tr>
<td>광업</td>
<td>11.5</td>
<td>19.9</td>
<td>13.6</td>
<td>9.9</td>
<td>9.1</td>
<td>10.0</td>
<td>10.9</td>
<td>4.4</td>
</tr>
<tr>
<td>(製造業)</td>
<td>(18.1)</td>
<td>(21.3)</td>
<td>(15.2)</td>
<td>(7.1)</td>
<td>(10.3)</td>
<td>(9.2)</td>
<td>(8.2)</td>
<td>(4.0)</td>
</tr>
<tr>
<td>서비스업</td>
<td>1.2</td>
<td>6.1</td>
<td>2.9</td>
<td>4.6</td>
<td>2.9</td>
<td>6.5</td>
<td>2.6</td>
<td>-0.6</td>
</tr>
<tr>
<td>물가 상승률</td>
<td>31.8</td>
<td>62.1</td>
<td>34.0</td>
<td>22.2</td>
<td>-1.3</td>
<td>1.3</td>
<td>11.7</td>
<td>14.0</td>
</tr>
</tbody>
</table>

주: 1) 서비스업은 정부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 포함.
2) 물가 상승률은 GNP디플레이터 기준임.


네 돈 지속적으로 고인플레이의 수습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57년에 금융구의 비록한 강력한 총정책을 실시하였다.

금융구의 내용은 위발,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은행증서를 기부하는 둥은 감가라 부담의 회수범위대로 약제하는 것이었으며, 총정책도 지출의 통제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구의 상환기한을 경과로 연평균 4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부품의 가수도 58년에는 -1.3%로 낮아져 인플레이션상속이 수습되었다.

제2순환의 징기는 이전은 정부 1971년 11월에 발행하였으나, 여전한 부품의 가수도 57년 8월에 발행하였다.

2. 第2循環 (1958. 8 ~ 1961. 9)

두번째 순환의 근본적인 요인도 제1순환과 마찬가지로 외국원조와 농작물의 작물이었다. 제2순환의 정책은 59년 10월에 실시되었는데, 이 기간에는 농업과 서비스의 경제 활성을 높였으며, 지출의 경제성은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기업을 강화하였다. 59년 10월 이후 2년동안 경제적 활동은 60년대 초반의 경제성장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성에서의 노동력의 감소에 기인한 사회적 기업은 연산이 대세로 부진하였고 서비스의 근본적인 향락도 미약하였다.

정책상의 특징으로는 57년에 제정된 안정화 정책의 농업 기조를 59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59년 2월에 금융구의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부품의 가수도 57년 11월에 발행하였다. 60년에는 상대적으로 부품이 큰 농업의 부품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자, 조정성을 장악하여 1.1%를 적격히 놓는 가운데 농작물 작황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에 부적하고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불런스 현상을 보였다.
이에 가세하여 4·19와 같은 정치사회적 사건은 경제침체를 더욱 가속시켰다.

3. 3차 3단계(1961. 9~1964. 2)

미국로의 민간정도에 따라 점차에서 해야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주식을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는 내교를 동원하여 국외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62년 5월에 「緊急通貨措置」를 단행하였으나 자금이 완곡히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실패로 보지 못하였다.

비록 내교동원책은 실현했으나 정부는 재정교환 확대에 의한 경제여건을 제1차 5개년계획의 기본 정책기조로 잡았으며, 그 결과 정부의 구축이 대폭적으로 평가하였던 세계면에서는 평가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稅制改革가 단행되었으며, 금융면에서도 투자촉진을 위한 「金利引下 및 貸出擴大措置」가 실시되어 경기는 63년 2월 끝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 평정적인 통화정책의 실시는 1958~59년 사이에 연평균 14.6%에 머물던 通貨容量을 60년 62년의 기간에는 무려 51.3%까지 끌어올렸다.

通貨증발로 인한 경기팽창은 物價仰騰, 國際收支悪化, 外匯保有高 減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재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63년과 64년에 정책기조를 안정화 우선 쪽으로 바꾸었다. 당시 안정화정책의 주요내용 중에는 國際收支 改善을 위하여 「輸出補助金政策」, 「輸出入 【Mc】」, 「求償貿易制」의 실시, 「輸出金利引下」와 같은 수출지원정책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한 外貨導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資本協力擴大를 의하였다.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대출의 억제와

(표 15) 3단계 3 주기의 경제成長 및 物價上昇率

<table>
<thead>
<tr>
<th>(단위: %)</th>
</tr>
</thead>
<tbody>
<tr>
<td>1962</td>
</tr>
<tr>
<td>経濟成長率</td>
</tr>
<tr>
<td>總消費支出</td>
</tr>
<tr>
<td>總固定投資</td>
</tr>
<tr>
<td>財貨 用 用轉輸出</td>
</tr>
<tr>
<td>財貨 用 用轉輸入</td>
</tr>
<tr>
<td>物價上昇率</td>
</tr>
</tbody>
</table>

注: 1) 物價上昇率은 GNP디플레이기준임.
資料: 韓國銀行, 『國民統計』, 1990.
재정안정계획과 같은 정확한 방향을 실시되었으므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물가에 대한 통제도 실시되었다. 경기안정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기 동서는 64년 2월까지 위축되었다.

4. 第4循環(1964. 2~1972. 3)

네번째 경기순환은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중 가장 긴 확장경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년 2월부터 65년 초, 전 산업이 경제전반의 확장 기간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65년 들어서 급격히 경기의 상승은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자금조달의 유인율 제고시기로써 외자금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시기에에는 금리상승과 아울러 금융부문의 대출한도가 제한되고, 투자산성을 개선시켜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금의 운용효과와 한국은행·한국은행에 따른 통화정책은 간접통제방식으로 이행되었다.

외화정책에서는 65년에 주요 운용기체의 작용을 실시하여 외화를 통제하는 계획이 나와서 수출_Blacklist과 외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기함으로써 정책을 고조하였다. 또한 수출집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전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자수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밖에도 수출조정, 경제전략, 외자수출을 위한 「외자수출 및 수입구제」, 혹은 후속조치들이 확립되었다. 이 기간중에는 재정이 일반적인 재정업이 높아져, 재정을 조정하여 민간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였다.

한국경제는 1964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동안 무분별한 외자자본으로 인하여 대외적존재가 심화되었고, 과도한 수출을 유발하여 실업기업을 출현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제류와 수입규제 등을 포함한 「경제안정화施策」을 69년 11월 및 7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IMF와의 인원으로 한 IMF의 압력이 직접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금융자본은 60년대 하반기의 지속적인 환율안정으로 인한 외환요원이 급격히
表 16 第4循環期의 경제成長率과 物價上昇率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經濟成長率</td>
<td>9.6</td>
<td>5.8</td>
<td>12.7</td>
<td>6.6</td>
<td>11.3</td>
<td>13.8</td>
<td>7.6</td>
<td>8.6</td>
</tr>
<tr>
<td>最終消費支出</td>
<td>6.5</td>
<td>6.3</td>
<td>6.8</td>
<td>8.3</td>
<td>9.6</td>
<td>9.4</td>
<td>9.5</td>
<td>8.9</td>
</tr>
<tr>
<td>總固定投資</td>
<td>-9.3</td>
<td>27.1</td>
<td>59.5</td>
<td>22.6</td>
<td>37.4</td>
<td>24.8</td>
<td>1.0</td>
<td>3.7</td>
</tr>
<tr>
<td>財貨/固定 輸出</td>
<td>23.5</td>
<td>35.9</td>
<td>42.4</td>
<td>32.7</td>
<td>39.5</td>
<td>36.1</td>
<td>19.6</td>
<td>21.8</td>
</tr>
<tr>
<td>財貨/固定 輸入</td>
<td>-24.2</td>
<td>12.6</td>
<td>56.2</td>
<td>30.8</td>
<td>43.6</td>
<td>26.6</td>
<td>8.0</td>
<td>19.6</td>
</tr>
<tr>
<td>物價上昇率</td>
<td>30.0</td>
<td>6.2</td>
<td>14.5</td>
<td>15.6</td>
<td>16.1</td>
<td>14.8</td>
<td>15.6</td>
<td>12.5</td>
</tr>
</tbody>
</table>

(단위：%)

備註: 1) 物價上昇率은 GNP디플레이 기초업.
資料: 韓國銀行, 『國民計量』, 1990.

負擔의 급증으로 부실화가 촉진되어 당국에
서는 廢縮政策을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
려웠기 때문입니다. 36)

IMF는 廢縮안상, 輸出補助金과 輸入規
制의 철제, 通貨緊縮, 借款導入의 잠정적인
상용필수 등을 권유했으나 IMF의 권유를
따르 경우 제2차 경제개발계획상의 성장목
표치가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IMF제안의 수용여부에 따
라 PL480과 추가적인 개발비여금을 고려하
겼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輸出補助金
철제를 제외한 기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Cho and Kim(1993)의
Box 2 참조).

이와 같은「經濟安定化施策」으로 말미암
아 제4순환은 71년 4월을 현저하 수축국
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72년 3월까지 경기
는 둔화되었다. 제4순환의 景気下降의 원인
으로는 1970년 美, 日本 등의 선진국 경
기침체에 따른 輸出增加率의 鈍화와 投資不
堅을 드 수 있다(圖 4, 表 16 참조).

5. 第5循環(1972. 3~1975. 6)

수축기에 접어든 경기는 72년 3중까지 수
축국면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71년 6월의
「換牽引上과 金利引下」, 72년 2월의「景気
回復을 위한 當面 經濟對策」, 4월의「物價,
景気 및 國際收支對策」 등을 연이어 실시하
였으나 景気活性化는 지연되었다.

景気回復이 지연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60년대 후반 고속 경제성장과정에서 企業財
務構造의 脆弱性이 심화되고 경영이 부실화
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設備投資增大가
경기호황시에는 주로 外部資本을 바탕으로

82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韓國</td>
<td>13.2</td>
<td>8.1</td>
<td>6.4</td>
<td>7.2</td>
<td>42.0</td>
<td>26.3</td>
<td>3.9</td>
<td>4.0</td>
<td>4.1</td>
<td></td>
</tr>
<tr>
<td>美國</td>
<td>5.2</td>
<td>-0.5</td>
<td>-1.3</td>
<td>13.0</td>
<td>18.8</td>
<td>9.3</td>
<td>4.9</td>
<td>5.6</td>
<td>8.5</td>
<td></td>
</tr>
<tr>
<td>日本</td>
<td>7.9</td>
<td>-1.4</td>
<td>2.7</td>
<td>15.7</td>
<td>32.1</td>
<td>2.7</td>
<td>1.3</td>
<td>1.4</td>
<td>1.9</td>
<td></td>
</tr>
<tr>
<td>韓國</td>
<td>4.7</td>
<td>0.2</td>
<td>-1.4</td>
<td>5.6</td>
<td>13.6</td>
<td>4.5</td>
<td>1.3</td>
<td>2.6</td>
<td>4.7</td>
<td></td>
</tr>
<tr>
<td>美國</td>
<td>8.1</td>
<td>-1.1</td>
<td>-0.7</td>
<td>7.3</td>
<td>23.7</td>
<td>23.1</td>
<td>2.7</td>
<td>2.7</td>
<td>4.0</td>
<td></td>
</tr>
</tbody>
</table>


이러한 점성된 이유들로 인해 6·3의 확대가 성장에 기여한 바는 있으나, 7월에 제시된 기업의 모호적 성장과 재정적 부하가 선수권과 국제 경제적 악화가 더하여 심화되었다. 이러한 재정적 부하가 제시된 기업의 자본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자본조달, 특허금리표, 식량보증제, 산업화 및 경영진의 효율화 등을 꾸준으로 하는 강력한 재정심도 조정을 실시하였다. 37)

8·3의 대책으로 인하여 경기화추세는 가속되었으나, 1973년 10월의 제4차 석유사태의 발생으로 이해 국내경기는 1974년 2월을 전반으로 서서히 명각되었다. 석유사태는 1973년 10월에 점도 중동화난을 겹치며 OPEC(석유 수출국기구)가 수은사태로 무기로 석유수출제한조치를 취하게 되며, 낙찰과 73년 백담당 3.0달러였던 원유가격은 74년 1월 1일에는 11.65달러로 거의 4배나 상승되었다. 이같은 석유사태는 불황 속의 자가상승이라는 스타그flation으로 재계경제를 몰아넣었으며, 원유를 장려 수입에 의존한 수책에 없는 한국은 커다란 경제적 충격에 부딪히게 되었다.

1973년 12월에 정부는 석유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유류 및 비료 등 석유관련제품의 가격을 현실화하고 63개 생필품과 주요 품목의 가격전량을 조정하여 제2차 식료물가 조정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물가조정...
6. 第6循環(1975.6~1980.9)

제1차 석유波動 이후의 국내경제는 75년, 상반기까지의 경제적 상황은 정부의 경제적 조치와 함께, 주로 물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과 금리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체제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75년 1월부터 75년 4월까지의 경제적 조치로는, 석유가격 상승과 함께, 물가상승에 따라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상승의 요인은, 75년 4월부터 75년 9월까지의 경기상승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75년 9월부터 75년 12월까지의 경기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75년 12월부터 75년 12월까지의 경기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제6순환 경기상승의 두가지 요인은, 75년 4월부터 75년 9월까지의 경기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75년 9월부터 75년 12월까지의 경기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75년 12월부터 75년 12월까지의 경기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기상승의 두가지 요인은, 75년 4월부터 75년 9월까지의 경기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75년 9월부터 75년 12월까지의 경기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75년 12월부터 75년 12월까지의 경기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성장률</td>
<td>6.4</td>
<td>13.1</td>
<td>9.8</td>
<td>9.8</td>
<td>7.2</td>
<td>-3.9</td>
</tr>
<tr>
<td>민간消費</td>
<td>5.1</td>
<td>8.4</td>
<td>5.8</td>
<td>9.2</td>
<td>8.8</td>
<td>-1.0</td>
</tr>
<tr>
<td>設備投資</td>
<td>9.7</td>
<td>36.4</td>
<td>36.2</td>
<td>49.9</td>
<td>16.5</td>
<td>-19.2</td>
</tr>
<tr>
<td>建設投資</td>
<td>6.9</td>
<td>12.1</td>
<td>24.1</td>
<td>24.5</td>
<td>4.1</td>
<td>-3.5</td>
</tr>
<tr>
<td>商品輸出</td>
<td>20.8</td>
<td>38.3</td>
<td>18.6</td>
<td>13.4</td>
<td>-0.7</td>
<td>10.9</td>
</tr>
<tr>
<td>商品輸入</td>
<td>-0.7</td>
<td>25.1</td>
<td>19.7</td>
<td>27.4</td>
<td>11.0</td>
<td>-7.5</td>
</tr>
<tr>
<td>貿易收支 (百萬 달러)</td>
<td>-1,671.4</td>
<td>-590.5</td>
<td>-476.6</td>
<td>-1,780.8</td>
<td>-4,395.5</td>
<td>-4,384.1</td>
</tr>
<tr>
<td>都資物価上昇率</td>
<td>26.3</td>
<td>12.1</td>
<td>9.0</td>
<td>11.8</td>
<td>18.6</td>
<td>39.0</td>
</tr>
</tbody>
</table>

【注】1) 貿易收支金額은 國際收支 기준임.
資料：韓國銀行, 「國民計算」, 1990。

7. 第7循環(1980. 9~1985. 9)

미국의 경기는 80년 7월을 底點으로 일단 완만한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으며 輸出도 신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景気沈滞가 지속되고 미국도 高金利에 따른 새로운 景気沈滞가 8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자, 82년도의 輸出는 크게 둔화되었다. 경기회복 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는 81년 9 월 金利引下げ를 단행하고 11월에 기업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등「綜合景気浮揚對策」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浮揚對策도 세계 경제의 위축 때문에 큰 위력은 발휘하지 못하였고, 82년에는 수출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경기수축을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83년에 輸出은 다시 회복되었고 84년 2월까지 상승 국면이 지속되었다.

정부는 80년대 초까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이던 物価를 안정시켜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成長과 國際收支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財政金融面에서의 緊縮基調를 강화하였다. 物価安定努力의 결과 단위 노동비용 등의 생산 과텐도가 안정되고 더행히 輸入原資材価格도 안정되어 80년대 중반까지 物価安定은 계속되었다.

긴축적인 通貨管理政策의 결과內需가 안정되면서 국내경기는 84년 2월 이후 수축 국면에 진입하였다. 84년 3분기에 들어서자,
8. 제8循環(1985. 9∼1989. 7)

85년 말에는石油輸出國機構(OPEC) 국가들이財政緊迫으로原油生產減産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자,國際原油價是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20%를 상회 하던 미국의優良企業貸出金利도 급차 하락 하여 86년에는 7.5%선으로 떨어지는 등國際金利도 하락했다. 국제通貨価值의 제tsy에 따르면달러의 가치하락과原油価格의下落은國際金利의 하락과 더불어 이른바‘3低現象’을 낳게 되었고, 85년 하반기 들어서상승국면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88년까지 높은輸出増加率과 함께 다시 한번 70년대와 같은高成長期을 맞게 되었다.

제6순환의상승국면의특징으로는株価 및地価의 급격한상승을 둘 수 있다. 85년까지 안정되었던株価와地価는86년부터치솟기 시작해서86년부터88년까지3년간
### 表 20 第8循環期의 국내경제活動、總通貨、株価 및 地価 推移

(단위: %)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經濟成長率</td>
<td>7.0</td>
<td>12.9</td>
<td>13.0</td>
<td>12.4</td>
<td>6.8</td>
</tr>
<tr>
<td>設備投資</td>
<td>4.5</td>
<td>23.9</td>
<td>19.4</td>
<td>13.0</td>
<td>15.2</td>
</tr>
<tr>
<td>建設投資</td>
<td>4.9</td>
<td>3.1</td>
<td>14.0</td>
<td>13.8</td>
<td>18.5</td>
</tr>
<tr>
<td>商品輸出</td>
<td>4.4</td>
<td>25.8</td>
<td>23.7</td>
<td>14.0</td>
<td>-5.0</td>
</tr>
<tr>
<td>商品輸入</td>
<td>0.4</td>
<td>19.3</td>
<td>20.1</td>
<td>12.3</td>
<td>14.2</td>
</tr>
<tr>
<td>經常收支 (百萬달러)</td>
<td>-887.4</td>
<td>4,617.0</td>
<td>9,853.9</td>
<td>14,160.7</td>
<td>5,054.6</td>
</tr>
<tr>
<td>生產者物價上昇率</td>
<td>0.9</td>
<td>-1.4</td>
<td>0.4</td>
<td>2.7</td>
<td>1.5</td>
</tr>
<tr>
<td>消費者物價上昇率</td>
<td>2.4</td>
<td>2.7</td>
<td>3.0</td>
<td>7.1</td>
<td>5.7</td>
</tr>
<tr>
<td>總通貨</td>
<td>11.8</td>
<td>16.8</td>
<td>18.8</td>
<td>18.8</td>
<td>18.4</td>
</tr>
<tr>
<td>株価上昇率 (年平均)</td>
<td>5.3</td>
<td>64.0</td>
<td>83.3</td>
<td>66.0</td>
<td>32.5</td>
</tr>
<tr>
<td>地價上昇率 (全國平均)</td>
<td>7.0</td>
<td>7.3</td>
<td>14.7</td>
<td>27.5</td>
<td>32.0</td>
</tr>
<tr>
<td>製造業貨金上昇率</td>
<td>10.0</td>
<td>9.1</td>
<td>11.6</td>
<td>19.6</td>
<td>25.1</td>
</tr>
</tbody>
</table>

資料: 韓國銀行、『國民計算』、1990．

資料: 韓國證券公所、『株価』、1992. 8．

### 表 21 第8循環期의 對外與件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엔 /달러 汰率</td>
<td>238.54</td>
<td>168.52</td>
<td>144.64</td>
<td>128.15</td>
<td>137.96</td>
</tr>
<tr>
<td>원 /달러 汰率</td>
<td>890.20</td>
<td>861.40</td>
<td>792.30</td>
<td>684.10</td>
<td>679.60</td>
</tr>
<tr>
<td>原油價 (US$/bbl)</td>
<td>26.51</td>
<td>13.10</td>
<td>16.93</td>
<td>13.22</td>
<td>15.65</td>
</tr>
<tr>
<td>유로달러 (%)</td>
<td>8.00</td>
<td>6.38</td>
<td>7.44</td>
<td>9.38</td>
<td>8.38</td>
</tr>
<tr>
<td>美國 프라임레이트 (%)</td>
<td>9.50</td>
<td>7.50</td>
<td>8.75</td>
<td>10.50</td>
<td>10.50</td>
</tr>
</tbody>
</table>

資料: 韓國開發研究院、『經濟動向主要目標』、各號。

株価는 연평균 71%、地價는 16.5% 상승하였다。

그러나 88년 초부터는 回際收支 黒字으로 인하여 원화가 切上하고 극심한 勞使紛糾로 인하여 貨金が 急騰하여 우리 상품의 回際 競争力이 강大化되었고、그 결과 輸出은 不振해져 国内経済は 88년 1월을 頂點으로 수축국民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 收縮期는 89년 7월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大韓의 여건의 業化와 더불어 88년 초에는 不動産投機過熱를 방지하기 위해 1월의 「不動産投機抑制総合対策」、7월과 8월의 「不動産対策」 및 「最近の 経済動向과 向後 政策課題」等が発表され、安政成長を 支持するために 10月には「経済の安定成長経済 推進対策」が発表
되였다. 아울러 88년 후반과 89년의 수출부진은 임금상승 등 이미 지적한 국내요인 외에도 미국의 수출 부진, 301조를 강화시킨 통화정책, 무역차익 확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불리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8순환의 底點博出은 住宅建設投資의 확대 및 民間消費増加에 의해 주도되었다. 정부는 住宅供給의 확대를 위해 89년 4월 보험 및 일단등등을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설비투자 축진을 위해서 7월에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11월 「經濟社會安定과 競爭力 提高을 위한 当面對策」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韓銀 再割引率, 通貨管理, 長期低利 特別設備資金 1兆원 造 設備, 住宅의 内需 浮揚을 위한 景気拡大施策이 포함되어 있었다.

89년에 부진하였던 輸出은 90년에도 여전히 부진하여 수출이 정상의 연중으로부터의 부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9순환의 경기상승은 주로 投資 및 消費를 중심으로 한 内需膨張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기상승기인 90년 4월에는 景気大와 不動産 投資的 지속적인 억제를 위해서 金融実名制의 実施留保, 特別設備資金 1兆원 중액, 技術開発準備資金 損金算入限度 확대, 不動産投資 儲蓄資金 匯金확대를 포함한 「4.4經濟活 性化 綜合對策」가 발표되었다. 4.4대책은 백마표 일어난 建設投資불과 맞물려 단기간 에 국내경기를 과열시켰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1990～91년의 경제는 物價上昇과 國際收支悪化라는 經済難局에 봉착하게 되었다.

제9순환의 頂點은 建設投資에 대한 非市場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91년중 生産活動이 가장 활발하였던 1월에 발생하였다.

〈表 22〉 第9循環 擴張期의 經濟活動

<table>
<thead>
<tr>
<th></th>
<th>1990</th>
<th>1991</th>
<th>1992</th>
</tr>
</thead>
<tbody>
<tr>
<td>成長率</td>
<td>9.3</td>
<td>8.4</td>
<td>4.7</td>
</tr>
<tr>
<td>民間消費</td>
<td>10.3</td>
<td>9.3</td>
<td>6.4</td>
</tr>
<tr>
<td>設備投資</td>
<td>18.4</td>
<td>12.8</td>
<td>-0.8</td>
</tr>
<tr>
<td>建設投資</td>
<td>29.1</td>
<td>11.0</td>
<td>-2.6</td>
</tr>
<tr>
<td>商品輸出</td>
<td>3.4</td>
<td>9.5</td>
<td>9.7</td>
</tr>
<tr>
<td>商品輸入</td>
<td>14.0</td>
<td>17.5</td>
<td>2.9</td>
</tr>
<tr>
<td>經常收支(百萬달리)</td>
<td>-2,179.4</td>
<td>-8,722.7</td>
<td>-4,604.9</td>
</tr>
<tr>
<td>貿易收支(百萬달리)</td>
<td>-2,003.6</td>
<td>-9,797.8</td>
<td>-2,198.4</td>
</tr>
<tr>
<td>生産者物價上昇率</td>
<td>4.2</td>
<td>4.7</td>
<td>2.2</td>
</tr>
<tr>
<td>消費者物價上昇率</td>
<td>8.6</td>
<td>9.3</td>
<td>6.2</td>
</tr>
<tr>
<td>製造業貨金上昇率</td>
<td>20.4</td>
<td>16.9</td>
<td>15.7</td>
</tr>
</tbody>
</table>

註：1) 生産者物價와 消費者物價는 1990년 기준
資料：韓國銀行，『國民計算』，1990。
統計廳，『消費者物價』，各號。
勞動部，『每月勞動統計調查報告書』，各號。
10. 第9循環頂點이후 (1991. 1 ~ 현재)

3년간을 지나면서 급속한 팽창을 이룬 내需은 뉴트랄화에 힘입어 1990 ~ 91년의 기간동안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 기간중의 내수확대는 경제내에 높은 수요

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를 상승시켰고, 아울러 국외수입도 큰 폭의 비

가를 받았으나. 이에 따라 경제는 내수를

강화화를 위해 1991년 1월 「경제安定과 성장

기반 확충대책」을 발표하고, 91년 7월부터

는 주택공급 부양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

로 허용해제를 도입하였으며 상업용 건

축물에 대한 건축허용제한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건설투자에 대한 엄격해질 경

제전세에 파급되어 경제를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규제는 92

년에도 지속되어 92년 2월에 발표된 「주택

건설물량과성공」가 건물건설에 관한 적절

적인 규제를 담당하였다. 1992년 하반

기에 들어 건설가격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6월 건축허용제한을 일부 해

제하였고 「5·8아동사진작업국제대회」 중 일

부를 완화하였다. 또한 정부 및 한국은행은

5월에 3조 2천억원에 이르는 합계社社

支援政策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효과를 가지

는 여러가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3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원만하나마 회

복되어 가기 시작했다.

1992년도의 景気転換 현상을 좀 더 자세

히 살펴보면 분기별 성장이 1분기에 4분

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었다.38) 支出面에

서는 해외수입을 나타내는 商品輸出이 9.7%

이었다. 1979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하

었으며 내수면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

았다. 総固定投資는 1.8%의 감소세로 반전

하였고, 民間消費 또한 91년의 9.3%에서

6.4%로 증가율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1993년 3분기까지 國民總生產資

料를 살펴보면 93년 경제는 建設投資의 회

복으로 발미야라 전년도의 景気沈滞로부터

정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商品輸

出은 엔화 강세에 기인한 가격경쟁력의 제

고에도 불구하고 輸出競爭力

弱화와 세계경제의 부진 때문에, 民間消費

은 國內景氣沈滞에 따른 시차효과와 不動産

景気의 沈滞 때문에 증가율이 92년보다 다

소 떨어졌으며, 設備投資는 遊休生産施設과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발미야라 92년보다 더

욱 감소하였지만 建設投資는 住居用建物建

設의 호조에 힘입어 3.7%나 증가하였다.

38) 이러한 추세는 93년에 변천되어 92년 4분기

이후 93년 3분기까지 經濟成長率이 정자 회복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基準循環日에 최근

底點이 확정되지 않은 경제成長率을 기

준으로 할 경우 92년 4분기와 底點으로 간

주할 수 있다.
表 23  最近國民生産의 支出項目別 增加率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國民總生産</td>
<td>6.8</td>
<td>9.3</td>
<td>8.4</td>
<td>4.7</td>
<td>4.8</td>
</tr>
<tr>
<td>民間消費</td>
<td>10.9</td>
<td>10.3</td>
<td>9.3</td>
<td>6.4</td>
<td>5.4</td>
</tr>
<tr>
<td>政府消費</td>
<td>9.7</td>
<td>8.9</td>
<td>9.4</td>
<td>8.8</td>
<td>3.3</td>
</tr>
<tr>
<td>總固定投資</td>
<td>16.9</td>
<td>24.0</td>
<td>11.8</td>
<td>-1.8</td>
<td>-1.2</td>
</tr>
<tr>
<td>設備投資</td>
<td>15.2</td>
<td>18.4</td>
<td>12.8</td>
<td>-0.8</td>
<td>-2.0</td>
</tr>
<tr>
<td>建設投資</td>
<td>18.5</td>
<td>29.1</td>
<td>11.0</td>
<td>-2.6</td>
<td>3.7</td>
</tr>
<tr>
<td>商品輸出</td>
<td>-5.0</td>
<td>3.4</td>
<td>9.5</td>
<td>9.7</td>
<td>8.7</td>
</tr>
<tr>
<td>商品輸入</td>
<td>14.2</td>
<td>14.0</td>
<td>17.5</td>
<td>2.9</td>
<td>3.1</td>
</tr>
</tbody>
</table>

資料：韓國銀行, 『國民計定』, 各號。

V. 結論

앞으로 우리는 6・25戰爭 이후 한국의景気循環의 特徵을 살펴보고 경기순환의 様態를 순환기별로 정리해 보았다。景気循環의 特性은 景気循環의 持続期間, 循環深度, 变動性, 共行性 및 時差性, 海外景気循環과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72년 이후에는 韓國銀行의 基準循環日과, 그 이후에는 統計廳의 基準循環日을 제택하였다。

1953년 이후 92년까지 겪은 아홉번의景気循環으로부터 한국경제의 平均循環期間은 33.9개월, 평균循環기간은 16.9개월, 평균循環은 51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循環循環深度에서 非農林漁業GNP가 경기확장과정에서 1~1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경기수축과정에서 6~16%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장기나 수축기의 平均深度는 9~10%포인트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증가율의 표준편차로 측정되는 变動性은 80년대에 들어와 모든 경제변수에서 감소하여 ‘80년대 안정성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며, 국면별로는 경기수축기가 확장기에 비하여 대체로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共行性은 많은 변수에서 관찰될 수 있으나 統計廳에서는 경기에 先行・同行・後行하는 경제변수를 특별히 선정하여 景気総合指數를 작성・발표하고 있다。共行性 및 時差性에 관한 제반변수의 특성은 景気動向이다。 原因에 중점을 기존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나라의景気循環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확장국면은 느 бю로 완만하며, 수도국면은 빠르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른
바 경기국면의 징례성은 보이고 있다. 마
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결과의 해외의 경
기결과의 연계성을 조사해 보았는데, 한국
의 경기결과는 지난 40년간 미국보다는
일본의 경기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는 경기결과의 환경을 6·25전쟁
이후 기본전환으로 따라 살펴보았다. 경기
결과의 원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분석하려면
경기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계정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국경제
가 겪은 경기결과의 변화가 선진국에 비해
저극히 짧거나 때문에 모형을 사용하여 경기
순환의 원인을 밝히는 방법을 제한하고, 그
대신 경기순환 혼산은 잠재적인 원인
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외생적 충격과 정부
의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법을 제한
하여 보았다.

이미 Ⅳ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역사 가운데는 경기순환
의 제도를 통해 실시한 정책이 세계경제여건의
약화와 맞물려 경기결과가 경기결과 시기가도 있
으며, 반대로 경기결과에 도입한 연내
결제금이 기대와는 달리 경기결과를 급격히
파열시킴으로써 단기간내에 물가를 급등시
키고 국제수출을 약화시킬 때도 있었다. 이
와 같이 적절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은 선
택하기란 정책결정자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경기조절을 위
해 실시한 정책이 자칫하면 가다시다 (go-
stop)를 반복하여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
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는, 가격부
등이나 UR과 같은 국제경제억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충격이 경제에 서
서히 흡수되도록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
시장제정책은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순환의
평활화는 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경기순
환과 성장투자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더
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올러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문제점은 최
소화하고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향상하
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시행에 대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민간에 대한 의무 감독성을
身亡 나가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金景中,『韓國의 經濟指標』, 每日經濟新聞社, 1993.
金基穏,『韓國的 景氣循環(I):特性』,『한
국경제연구』, 제3권 제2호, 韓國經濟研
考, 1989.

——, 「한국의 景氣循環(Ⅱ) : 原因」, 『한국경제연구』, 제4권 제1호, 韓國經濟研究院, 1990.

金俊経, 「政策金融의 財源造成 改善方向」, 宋大熙・文亨杓(編), 『國家財政與 政策目標』, 韓國開發研究院, 1993. 8.

——, 「韓國景氣循環的 特徵과 様態에 관한 論評」, 韓國經濟研究院, 1993. 12.


朴東淳, 「景氣轉換點의 新的 調査技法」, 『금융경제연구』, 제8호, 韓國銀行, 1990. 4.


徐相穆, 「景氣綜合指數 作成에 관한 研究報告書」, 韓國開發研究院, 1981. 10.

丁雄鎬, 「우리나라 景氣變動의 基準循環日에 관한 研究」, 『금융경제연구』, 제7호, 韓國銀行, 1990. 4.

統計廳, 「景氣綜合指數(CI) 改編」, 보도자료, 1993. 9. 28.

——, 「景氣綜合指數」, 1993. 8.

韓國開發研究院, 『94년 經濟運用方向 및 課題』, 1993. 12.

韓國銀行, 「우리나라의 景氣動向指數」, 『조사월보』, 1972. 9.

——, 「景氣預告指標 改編內容」, 『조사월보』, 1976. 4.


Hildebrand, George, Business Cycle Indicators and Measures: A Complete


